

“인도적 지원은 계속 돼야”

민추본 15일 대북지원물품 상차식

최근 화폐개혁으로 시장기능이 정지돼 의약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불교계가 인도적차원으로 북한에 약과 쌀 등의 물품을 지원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는 12월 15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앞에서 총무원장 지승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지원물품 상차식’을 열었다.

민추본이 연말을 맞아 조선불교도연맹에 쌀 300가마(40kg), 의약품 115박스(감기약, 구충제) 총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자 한 것.

이날 지승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현재의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지만 인도적 지원은 계속 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신종플루치료약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추본이 이번에 지원하는 물품은 조계종의 대북교류기금, 봉은사, 도선사 등 각 사찰들의 보

시금, 구례 화엄사가 지역 농민들과 함께 경작한 ‘통일쌀’ 등으로 마련됐다. 상차식에는 화엄사 부주지 영관 스님과 구례농민회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지승 스님은 “특히 화엄사와 지역농민들이 경작한 ‘통일쌀’은 의미가 깊다”며 “이번에 준비한 물품이 북한에 잘 전달되어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추본 본부장 명진 스님은 “이번 대북지원이 통일에 단초가 되길 바란다. 또 정부차원에서라도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지원물품은 12월 18일 금강산에서 인도인수식을 통해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에 전달된다. 인도인수식에는 총무원 사회부장 혜경 스님, 민추본 사무처장 진호 스님 등이 대표단으로 참가할 예정이다. 민추본의 대북 물품 지원은 지난해 4월 28일 쌀과 의약품 등을 육로로 전달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박선주 기자

전통사찰에 도로 ‘반발’

옥련사 경내지 관통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에 반대

1300여 년 역사와 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에 고속도로가 관통될 계획이어서, 조계종 제16교구 본말사 스님들의 반대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불교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12월 18일 기공한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는 2015년까지 총연장 110.6km로 4차선으로 완공된다.

이 고속도로가 경내지를 관통하는 의성 고운사 말사 옥련사(주지 석우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다. 천년고찰을 고속도로가 관통한다는 소식이 옥련사는 2000여 사부대중의 반대 서명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등 심의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설치할 추진하기로 했다”며 “옥련사와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옥련사 측은 “몇 차례 반대공문을



고속도로에 의해 경내지가 관통될 위기에 처한 의성 옥련사에 고속터널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보냈지만 담당기관은 사찰을 관통해 길을 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옥련사의 반대 의지 표명이 무색해지자 제16교구 본말사 주지스님들도 성명서를 내는 등 적극적인 실행행사를 준비 중이다.

주지스님들은 성명서에서 “문화재사찰인 동시에 전통사찰보존법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찰 경내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조계종 총무원장의 승인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있어야하는데 국토해양부는 이마저도 무시했다”며 고속도로 건설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특히 스님들은 “옥련사는 지방문

화 제355호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 봉안돼 있고, 고속도로 터널 공사 시 터널이 사찰과 100m 거리 밖에 되지 않아 문화재 훼손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문화재법에는 문화재 인근에 건축·도로를 설치할 경우 문화재로부터 300m 이상을 이격하도록 명시돼 있다.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는 “동산문화재는 이동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상 규정된 300m의 절반을 조금 넘는 180m 거리 이격에 고속도로 건설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현장답사를 실시한 조계종 사회부 관계자는 “옥련사 인근에 예정대로 고속도로가 건설될 경우 신라시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수행환경 훼손과 생태환경 파괴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노선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진흥원·불교방송 ‘파국’

조계종 종회·진흥원·BBS 토론회 개최 결의

불교방송이사회서 진흥원이 추천한 사장후보에 대한 선임이 무산돼 두 기관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12월 17일 마포 가든호텔에서 제70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출 △사장 선출 △2010년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을 논의했다.

영담 스님은 사장 선출에 관한 건이 상정되자마자, “사장 후보에 관해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검증해 본 결과 합당미달이었다”며 진흥원이 추천한 후보 중 사장 선임할 의지가 없음을 강력히 피력했다.

스님이 두 후보를 합당미달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김정학 후보자의 선교방송 전력과 윤태원 후보의 자료부족으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경영능력과 부족한 방송경력이다.

영담 스님은 “현격한 문제가 있는 후보자를 불교방송 사장으로 추천한 진흥원의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담 스님의 문제제기에 진흥원 상임이사인 김규철 이사를 비롯해 송석규·이용우 이사가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비공개로 전환된 이사회는 진흥원과 불교방송의 인사 각 2인씩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장후보 규정, 정관상 나이제한 문제 등을 전

면 검토하자는 결의안을 내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에 앞서 불교방송 이사로서 현직 이사 중 임기종료를 앞두고 있는 춘광 스님(천태종), 무의 정사진(각종)의 연임과 도후 스님의 사퇴로 추천된 정남 스님(前 낙산사 주지)이 새 이사로 선임됐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 이하 진흥원특위)는 12월 14일 2차 실무회의에서 “1월 28일 오전 10시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 중앙종회·대한불교진흥원·BBS 3개 기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결의했다.

토론회에는 특위위원장 의연 스님이 발제를, 선문 스님(중앙종회의원)이 사회를 맡으며, 각 토론회로는 조계종 기획실장 스님과 진흥원 상임이사, BBS불교방송 사장권한대행이나 상임이사 등 실무책임진이 나서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 12월 21일까지 공문 등을 송부하고, 직접 면담 등을 통해 토론회를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자우 스님(서울 금강사 주지) 등 증언과 관계된 활동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조동섭·노덕현 기자

“Hello, 달마” 영어법회하자

조계종 포교원 ‘헬로 달마스쿨’ ‘워크북’ 출판

어린이법회용 영어교재가 첫선을 보였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훈)은 12월 11일 어린이법회용 영어교재 <헬로 달마스쿨(Hello! Dharma School)> <워크북> 등을 출판했다.

본 교재인 <헬로 달마스쿨>은 지혜, 자비, 고집멸도, 기도, 수행 등 12개의 중요한 불교 기본 개념, 핵심적 교리 등으로 선별 구성됐다. 교재는 쉬운 영어 문장으로 집필됐으며 다채로운 삽화의 과감한 사용으로 어린이들의 시각을 끌도록 했다. 본 교재에는 원어민의 영어 발음이 실린 플래시북 CD를 부록으로 만들어 법회 현장이나 가정에서 학습이 가능하게 만들어졌다. 부교재인 <워크북>은 비교적 쉬운 내용과 그림 그리기, 파닉스 연습, 본문 이해와 평가, 사회·과학·수학 활동 등 어린이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 내용들을 실었다.

<영어법회지도안(Teacher's Guide)>도 함께 제작됐다. 지도안은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나 지도사가 어린이 법회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그림, 찬불동요, 율동, 만들기, 그리기 등 통합교육적인 면까지 고려했다. 또 지도안 내에는 <설법지도안>이 있어 법회에 앞서 기본적인 불교의 개념과 교리 이해 수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포교원은 전국 62곳의 어린이청소년 포교 중심도량 위주로 새 영어교재 설명회와 지도자 워크숍을 통해 지도법 등을 교육,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 영어법회 시범사찰로 지정된 대각사, 옥천암, 상도선원, 비로자나국제선원 등은 교재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매주 영어법회를 진행 중이다. 교재는 전국 주요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포교원을 통한 구매와 지원도 가능하다. (02)2011-1895 이상연 기자

“생명의 강 온전히 흐르게 하소서”

종교환경회의, 15일 4대강 사업저지 ‘4대 중단 공동기도회’

수많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이 강행되는 현실점을 생명의 위기로 진단한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는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4대강사업 저지를 발원하는 ‘4대 중단 공동 기도회’를 진행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회개하고 자신과 시대를 정화하기 위해 4대 중단 공동기도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기도회의 1부는 오영숙 수녀(사랑의씨네수녀회)의 사회로 효립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명예의장)의 여는 말씀으로 시작해 △생명의 노래 △4대 중단 입장발표 및 기도회 △쌍팔당 주변 유기농업자들 입장 발표 △공동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



15일 국회앞에서 열린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4대 중단 공동기도회에 동참한 스님들.

했다. 2부는 종교인 행진 및 한나라당 대표 면담 자리가 계획됐었지만 경찰의 제지로 각 종단 대표자들만 국회에 가서 종교평화회의의 입장을 전달했다. 종교환경회의는 4대중단공동선언문에서 “4대강사업 예산심의를 즉각 중단시키고 민생예산으로 전

환시켜야 한다”며 “종교인들은 4대강 사업이 중단될 때까지 전국의 사찰, 교회, 성당, 교당에서 온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각 교단은 4대강 순례·홍보지 제작 및 배부(개신교), 4대강 사업 반대 플래카드를 게재하겠다(가톨릭, 원불교)고 밝혔다.

현재 불교계에서는 지울 스님과 함께 하는 4대강 순례가 진행 중이며, 내년 초 ‘4대강 사업 반대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 지울 스님은 3월부터 8개월에 걸쳐 낙동강 구간을 걸어서 답사한 뒤 지금은 경북 상주시에 정착해 주말마다 경북 지역 4대강사업구간(낙동강)을 감시하는 등 ‘낙동강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교사를 위한 마음공부과정

나로부터 시작하는

교사의 행복

교사를 위한 마음공부과정은
일인마음으로 행복한 교사를 만들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초, 중등교사 (예비교사 포함)
교육일정 | 2010년 1월 5일(화)~1월 29일(금), 주 2회, 8회 교육
매주 화, 금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30분 (단 1, 8회는 오전 9시~오후 5시)
모집인원 | 선착순 30명
모집기간 | 2009년 12월 31일(목)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hansi.org)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리플렛, 전화로도 신청 가능
수강료 | 10만원
문의 | 031-471-6926~7 * 월요일 휴무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1 | 개금불 2 | 비취옥불 3 | 백옥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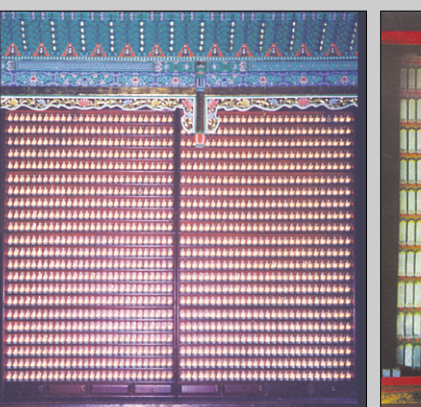
1 | 대나무숯불 2 | 대나무숯불

- 규격 : 소불 - 5저, 7저, 9저,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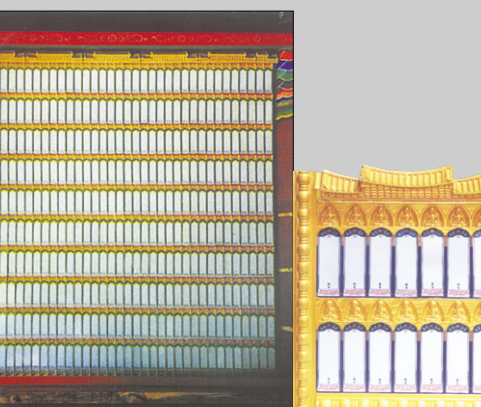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 옥촉대, 연등전선승강장치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1 | LED 인등 (해님 대홍사)



1 | 영가위패단 (파주 보령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1 | 공단등 2 | 바리등 3 | 영가등 4 | 금등